

농업인대학 친환경농업반 특강



제4기 고성군 농업인대학 친환경농업반 특강이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렸다. 13일에는 이종남 농학박사(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센터)가 '시설원예작물 염류장해 해결방안'이란 제목으로, 14일에는 이상범씨(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유기농업과)가 '친환경 유기퇴비 제조 및 활용기술'이란 제목으로 특강했다.

농어촌공사 부사장 인흥 방문



한국농어촌공사 허윤진 부사장은 사업추진 현황 및 문제점 점검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4일 고성 인흥지구 지식기반센터 현장과 대포3 해양수산가공특화단지 현장을 방문했다.

허윤진 부사장은 "일선 현장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지고 근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장 직원들의 근무 자세를 강조했다.

국내 최초 꼼치종묘 시험생산·방류

강원도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 공현진에서...어업인 소득증대 기여

동해안의 별미로 꼼치국의 재료로 쓰이는 꼼치가 강원도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에서 국내 최초로 시험생산에 성공함에 따라 연안 방류를 통한 안정적인 공급과 대량생산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소장 한형교)는 지난 13일 죽왕면 공현진항에서 해양심층수로 시험 생산된 꼼치종묘 3만마리를 방류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어업인 등 5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종묘생산 추진과정 보고에 이어 정치망어선을 이용해 방류해역으로 이동한 후 3만마리 꼼치종묘의 방류가 이뤄졌다.

이날 방류한 꼼치종묘 3만마리는 지난해 9월 고성군에서 건강한 어미를 수시로 확보해 해양심층수를 활용, 서식환경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인공채란 및 부화해 키운 것이다.

최근 자원량이 급격히 감소해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마리당 15만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특산어종인 꼼치는 그동안 심해에 서식하는 데다 산란하는 장소도 수심이 깊어 양질의 수정란을 확보할 수 없어 인공종묘생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동해안 꼼치(미거지)는 남해안에서 1



강원도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소장 한형교)는 지난 13일 죽왕면 공현진항에서 해양심층수로 시험 생산된 꼼치종묘 3만마리를 방류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년생 어류로 알려져 있는 물메기와는 다른 품종으로 80cm(8kg)이상까지도 성장하는 한해성 어종이며, 여름철 수심 1,000m 내외의 심해에 서식하다 산란을 위해 겨울철 연안수심 100m 지점까지 회유하는 생태를 가지고 있다.

강원도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는 "해양심층수를 활용해 개발된 인공종묘 생산기술을 토대로 매년 20만마리 이상의 종묘를 지속적으로 방류할 계획"이라며 "동해안 꼼치 자원회복에 주력함으로써 겨울철 어업인들의 직접적인



방류되기 전의 꼼치 종묘 모습.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원광연 기자

저렴한 가격에 최고의 서비스

고성지역 유일 개인 결혼식장 ... 항구서 작업하다 하객으로 참여 가능

업체탐방

순정웨딩홀

"결혼은 또 하나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두 사람이 백년 해로의 진실한 가약을 맺고자 합니다. 새 인생의 첫걸음을 내딛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봄 결혼시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콘도 예식장에 맞서 거진지역을 지키며 여러 쌍의 결혼커플을 만들어내고 있는 고성군 유일의 개인이 운영하는 웨딩홀이 있다. 바로 거진읍에 소재해 있는 순정웨딩홀이다.

2008년 오픈해 연면적 1,390㎡ 규모에 거진항과 가까

운 곳에 자리잡고 있는 순정웨딩홀은 1층 주차장, 2층 예식장, 신부대기실, 폐백실, 3층 연회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개인 웨딩홀은 한때 콘도와 복지회관의 결혼식장이 늘어나면서 존폐위기에 놓였으나,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은 거진 지역에 웨딩홀이 필요하다는 성원에 힘입어 4년전에 리모델링을 한 후 순정웨딩홀이 오픈했다.

순정웨딩홀 김규성 대표(41세)는 "저희 웨딩홀은 거진읍내에 위치해 항구에서 작업을 하다가도 하객으로서 축하해 주기 위해 오는 경우가 많다"며 "오래전부터 예식장으로 이용했던 곳이라



2008년 오픈한 순정웨딩홀은 연면적 1,390㎡ 규모에 1층 주차장, 2층 예식장, 신부대기실, 폐백실, 3층 연회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거진 주민들에게는 정이 깃들여 있는 고향 집 같은 곳"이라고 말했다.

순정웨딩홀은 예식장 사용료는 무료이고 국수만 판매한다. 대다수의 웨딩홀이 뷔페를 운영하는

것과 달리 뷔페는 운영하지 않고 이용자가 외주업체에 직접 주문하거나 대행을 해준다.

김 대표는 뷔페를 운영하면 수익이 더 발생하지만 지역에서 기존의 2개 뷔페업체가 있어 상생



순정웨딩홀 김규성 대표

하는 차원에서 저희 웨딩홀에서는 국수만을 판매하고 뷔페 운영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

김 대표는 "결혼비용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들을 모셔 이익을 많이 남긴다는 생각보다는 평생 단 한 번의 소중한 결혼식 장소를 제공한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정웨딩홀은 결혼뿐만 아니라 돌잔치 등 각종연회, 모임, 행사 등도 환영한다. 예약문의 <682-8381, 011-372-2942>

원광연 기자